

北 수해 사상자 4,000명 육박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사망 549명, 실종 295명” 평양방송 “1만명설” 터무니 없는 과장·왜곡

북한의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7일 “지난달 14일부터 16일에 걸쳐 북한 일부 지역에서 내린 폭우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가 났다”면서 “(북한) 자료에 의하면 549명의 사망자와 295명의 행방불명자, 3천43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피해 상황은 수해 직후인 지난달 17일까지의 피해 집계 결과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대북단체 일각에서 제기된 인명피해 1만명설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북한의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이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인명

피해 상황이 이렇게 한자리 숫자까지 보도된 것은 이래적이다.

이는 수해상황이 과장되게 전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온갖 소문이 나도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5일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번 수해로 인한 북한의 인명피해가 1만명에 이르고 이재민 수가 130만~150만명에 달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너무도 허무하게 과장하고 왜곡한 모략적인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또 이번 수해 상황과 관련, “1만6천667동 2만8천747가구가 사는 살림집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 중 4천438동(7천847가구)은 완전

파괴, 3천51동(5천282가구)은 부분 파괴, 9천178동(1만5천618가구)은 침수됐다”고 밝혔다.

농경지 피해와 관련, “총 피해 경지는 2만3천974정보(1정보는 3천평)로 그 중 침수된 경지는 1만6천194정보, 매몰된 경지는 4천250정보, 유실된 경지는 3천530정보에 달한다”면서 “농경지와 함께 설비와 영농물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對北 수해지원 이번주 가닥

정부, 의견수렴... 쌀·구호장비 전달할 듯

정부의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수해 지원 규모와 일정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번 주 대북 수해 지원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지원 규모와 내용,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단을 만나고 9일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상임대표 위원들과 오찬을 하는 데 이어 저녁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백낙청 공동위원장 등과 만난다.

정부는 8~9일 만남에서 대북 수해 지원의 큰 틀을 잡은 뒤 11일 북민협과 신인상 통일부 차관 주재로 대북지원민간정책협의회를 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북민협은 대북지원단체 60여개가 가입한 협의체로, 이날 민간정책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대북 수해 지원 금액과 내용, 일정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북 수해 지원의 윤곽이 드러나고 이달 중에는 북측에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헤즈볼라 로켓포 반격

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6일 레바논 남부 티레항 인근의 한 개활지에서 헤즈볼라 게릴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공격을 가하고있다. 이 공격은 이스라엘 하이파에 작렬해 수십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AP연합뉴스

이-헤즈볼라 공방 격화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앞두고 헤즈볼라 최대규모 로켓공격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 간 전투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헤즈볼라는 6일 개전 이래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가해, 이스라엘 예비군 12명 등 최소 15명이 숨졌다.

이스라엘 하이파에서는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60명 이상이 부상했다. 유엔 구조요원들은 붕괴된 건물 debris에서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스라엘도 레바논 공격을 계속해 일가족 5명을 포함한 레바논인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과 레바논 남부지역을 공격했으며 몇몇 마을은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폭격을 받았다고 보안 관리들이 전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특히 지난주 구조요원들은 붕괴된 건물 debris에서

는 남부 카나 마을의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남은 시간을 적극 활용해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6일 레바논의 요구 사항을 결의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90분간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이시하라지사 일본 핵무장 주장 논란

이시하라 신타로(73·사진) 일본 도쿄도 지사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촉구하는 논조의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이시하라 지사는 7일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일본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과의 긴장관계로 일본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비책을 역설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논객인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보복을 단행할 국가로서의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또 북한의 공격행위가 있을 경우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에 보복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 독재정권이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적기지공력론에 대한 한국측의 비난은 “일본에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뿐이며, 일본의 국가주의적 감정이 고조되면 핵보유 의욕이 그만큼 끈단하게 된다”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지 사실도 인용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동아시아가 냉전이후 새로운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과거 유럽에 비해 비중이 낮은 이 지역에서 일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할 경우 “우리가 그대로 길거리로 방치돼 중국의 패권에 흡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이 ‘집이 나쁜’ 고도성장에서 ‘질 좋은’ 저성장으로 바뀔 전망이 보이지않기 때문에 늦어도 올림픽 직후 중국의 버블경제가 파탄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중국 정부가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이같은 중국의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준비의 시간이 별로 없다며 시급한 대비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일본인 51% “한국 신뢰할 수 없다”

일본 국민의 절반 가량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최근들어 반한(反韓) 감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한국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띄게 했던 한류붐도 점차 사들해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국일보와 양국에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해 7일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51%로 지난해보다 17%가 증가했다. 또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일본인도 51%로 작년보다 9%가 늘어났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16%가 감소한 43%에 불과했다.

한일 양국관계가 나빠졌다고 보는 일본인도 59%로, 한국을 신뢰하지못한다는 응답과 함께 지난 1995년 양사가 공동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英 인디펜던트 선정 ‘21세기를 위한 50가지 위대한 아이디어’ 구글·네비게이션·게이츠재단...

포털사이트 구글, 길을 안내해주는 네비게이션, 코르카가 아닌 나사식 병마개 포도주, 인터넷서점 아마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최근 선정해 발표한 ‘21세기를 위한 50가지 위대한 아이디어’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특징 지을 수 있는 20세기와 달리 21세기는 아이디어와 속도가 중요한 미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서비스인 핫메일닷컴, 인공지능을 이용한 도로 안내 시스템인 네비게이션 등이 21세기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로 꼽혔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이끄는 벤처자선사업도 21세기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이밖에 작은 불빛이 달려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입술을 칠할 수 있는 리파라치, 2시간만 끓이면 이가 하얗게 되는 미백제 같은 미용용품들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日 자민당, 야스쿠니 국가관리 법안 검토

일본 자민당은 총리 등 지도자들의 참배로 국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 문제와 관련, 야스쿠니를 종교법원에서 국가관리 시설로 바꾸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정조회장은 이와 관련해 6일, A급 전범 분사 문제에 대해 “유족들이 희망한다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야스쿠니 비종교법인화 법안의 검토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서경빌딩 임대

4층 277㎡ 동·서쪽	5층 200㎡ 동·서쪽	6층 200㎡ 동·서쪽	7층 200㎡ 동·서쪽
------------------	------------------	------------------	------------------

... (more details) ...

SONY

DSLR 카메라

대형우울 필 렌즈 | 소니 광우울필렌즈 (α33) α33-3000 | 소니 광우울필렌즈 (α33) α33-3000

서경빌딩 임대

4층 | 277㎡ | 동·서쪽
5층 | 200㎡ | 동·서쪽
6층 | 200㎡ | 동·서쪽
7층 | 200㎡ | 동·서쪽

... (more details) ...